

# 가을호

2017. Oct  
no. 015

# 자명종

**특별기고** | 우리나라 공무원노조의 형성  
**핫 이슈** | 공무원 성과급 및 성과연봉제 폐지 1인 시위  
학교조직 법제화 /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조항 개정  
직종개편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T/F구성  
특수직무수당 개정 / 병설유치원 겸임수당 지급  
교육청노조와 「노사협의 정례화」 추진 / 노사합동 워크숍 개최

경북교육청 공무원들이  
함께하는 참 좋은 대화





## 가을별 / 이선욱

가을별 아래  
곡식들 익어가네  
저마다의 단단한 보석을 품고

고요히 자란 키들로 모여  
풍요로운 대지의  
한 철을 이루네.

가없이 곡식들의 빛으로  
출렁이는 오후의 지평선은  
어디론가 흘러가고

밀짚모자를 쓴 한 노인은  
문득 허리를  
일으켜 세운 채

홍얼거리던 옛 가요 속  
빛바랜 주인공이  
되기도 한다네.



# CONTENTS

- 2** 권두시  
가을 별 / 이선욱
- 4** 특별한 만남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면담
- 6** 노사협의회 결과  
2/4·3/4분기 노사협의회 결과
- 8** 노조소식  
공무원 성과급 및 성과연봉제 폐지 1인 시위  
노사협의회 개최 ● 조합원 교육 ● 노사간부교육 ● 사회봉사 활동
- 13** 특별기고 《연재 ②》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종기
- 16** 문화소식  
신간도서(베스트셀러)
- 17** 지식백과 / 김영란 법
- 18** 조합원 칼럼  
꿈을 찾아 떠나는 여행 / 배용호  
아버지! / 국미숙
- 20** 우리도 예술가  
그 아이가 손을 내민다... / 우성한
- 21** 함께해요
- 22** 조합원 복지 안내  
건강검진 ● 가전제품 ● 상조서비스



#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면담

● 일시: 2017년 9월 27일(수) 14:20 ● 장소: 여의도 교육시설공제회관

## 인사·제도 분야

### 1. 학교조직(행정실 등) 법제화

#### 가. 현황

대학교와 달리 초·중등학교는 학교조직(행정실 등) 설치가 법제화되지 않아 학교장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로 운영하면서 교원과 갈등을 초래하여 업무항상을 저해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나. 추진 경과

- 19대(유은혜의원)에 이어 20대(유은혜·송기석 의원)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발의
- 現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반대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음

#### 다. 건의 사항

- 교육부(국회)가 학교조직(행정실 등) 설치를 법제화하여 학교 행정 사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 라. 참고 사항

- 2012년 9월 27일(수) 이주호 장관과 노사협의회 시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못지 않게 지방공무원들의 고충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노조에서 요청한 「학교 행정실 법제화」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약속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음.

### 2.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조항 개정(교원→교직원)

#### 가. 현황

교원에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고, 교원위원으로 당선되면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의 경우 교원위원 선거만을 위한 형식적인 선거권만 있고, 피선거권은 부여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실정임.

#### 나. 추진 경과

- 교직원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보장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안민석의원 등 17인)이 발의(2016년 8월 24일)
- 現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

#### 다. 건의 사항

- 교육부(국회)가 교육청소속 지방공무원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피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 3. 직종개편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T/F 구성

#### 가. 현황

- 2013년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기존의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내에 유사업무가 없는 직군(렬) 신설하여 전직 시행
- ※ 시설관리, 조리, 운전, 방호, 간호조무, 위생등

#### 나. 문제점

- 전직시험 기간종료(2016. 12. 31)이후 정원축소 및 상위직급 미확보로 인한 장기재직 관리운영직군의 일반 승진이 제한되고 대다수가 7급으로 퇴직을 앞두고 있는 상태임

#### 다. 개선사항

- 노사 공동으로 T/F 구성

## 수당 분야

### 1. 특수직무수당 개정(신설)

#### 가. 현황

교원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과의 각종 수당관련 형평성 문제로 사기 저하

#### 나. 추진 경과

-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교육청소속 지방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특수직무수당 신설 입법예고 (2016. 12. 26)
-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각각 국립학교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일반직에 대하여 특수행정분야의 제11호 “자목”을 신설하는 것으로 입법예고(2016년 12월 26일)
- 특수직무수당 신설은 국가직(국립학교 직원)이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반대의견 제출(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 ※ 국립직원 수 : 54명, (유치원 3교(2명), 초등 17교(32명), 중학교 9교(20명))
- ※ 공립직원 수 : 34,574명, (유치원 4,693교(890명), 초등 5,909교(24,519명), 중학교 2,560교(9,165명))
- 국무회의 상정 안건에서 특수직무수당 신설 삭제(2017년 1월 3일)

#### 다. 건의 사항

- 교육행정기관(공립 유·초·중·고·교육청 및 직속기관 등)에 근무하는 5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수직무수당(가칭 “교육행정활동비”) 신설

〈신구조문 대조표〉(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9)

현행	개정(안)
특수행정분야 11. 특수직무수당 가.~아.(생략)	특수행정분야 11. 특수직무수당 자.(가칭"교육행정활동비" 조항신설) 1) 5급이하 지방공무원 : 월 70,000원 지방교육행정기관(유·초·중·고 교육(지원)청 및 직속 기관 등)에근무하는 5급 이하 지방공무원

### 2. 병설유치원 겸임수당 지급

#### 가. 현황

병설유치원 근무 지방공무원의 경우 감사책임과 실질적인 업무를 겸임해 왔음에도 법률적 근거 미비로 “겸임업무수당” 이 지급되지 않고 있음.



※ 「교육공무원 임용령」 검임근거로(교장 월10만원, 교감 월5만원) 검임수당 지급 중

## 나. 추진 경과

- 행정자치부 예규 제75호(2016년 12월 28일)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을 개정하여 초등학교 행정직, 기술직공무원이 병설 유치원의 행정직, 기술적 업무 검임 가능함을 예시
-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의5(검임) 제2항제4호(2016년 12월 30일) 신설하여 병설유치원 검임수당근거 마련

### (지방공무원임용령 신규조문 대조표)

구조문	신조문
제7조의5(검임)①	제7조의5(검임)①
②제1항에 따른 검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검임하는 경우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하며,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검임하는 경우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3. (생략)	1. 3. (현행과 같음)
〈신설〉	4. 일반직공무원과 직무내용이 관련이 있는 다른 일반직공무원 간

## 다. 건의 사항

-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개정 수당지급 근거마련에 따라 병설유치원 근무 지방공무원에 검임업무수당 지급(월5만원)

## 노사 상생 · 협력 분야

### 1. 교육청노조와 「노사협의 정례화」추진

#### 가. 목적

교육부와 노동조합이 “노사협의 정례화”를 통한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건전한 노사관계를 구축하여 교육부 소속 지방공무원 노사관계를 한층 더 개선하고자 함.

#### 나. 건의 사항

- 교육부와 교육청노조 간에 「노사협의 정례화」에 필요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년 2회)

### 2. 노사합동 워크숍 개최

#### 가. 목적

교육부가 주관하는 “노사합동 워크숍”을 통해 노사 상생과 협력의 길을 모색하여 선진 노사문화를 구축하고자 함.

#### 나. 건의 사항

- 노사 상생과 소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육부 주관 「노사합동 워크숍」을 년1회 개최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중기 이하 경북교육청노조는 2017.9.27(수) 14시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공제회관에서 김상곤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을 면담하고 교육청노조의 주요 현안사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교육청노조에서는 학교조직(행정실) 법제화,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지방공무원포함, 직종개편 후속대책에 관한 T/F팀 구성, 학교행정실직원 특수직무수당과 병설유치원 검임수당 신설 등을 요구하였다.

김중기 위원장은 “오늘 건의하는 안건 중 대부분이 2006년 교육청노조 설립 당시부터 교육부에 요구한 사안으로 아직까지 이루어진 것이 없다.”면서 “사회부총리의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달라.”라고 하였다. 이어 “공무원 직종개편 이후 학교현장의 또 다른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일부 직렬들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부가 주관하는 T/F팀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교육청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김상곤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지난해에 이미 입법 예고 된 바 있는 가칭 ‘교육행정활동비’ 신설과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일반직 포함, 직종개편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T/F팀 구성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면서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하였다. 다만 “학교조직(행정실) 법제화 부문은 여론수렴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고 하면서 향후에도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를 자주 가지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북교육청노조 김중기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청노조 오재형 등 13개 가맹조합 위원장들이 참석하였으며 교육부에서는 지방교육국장, 지방교육자치과장과 담당관들이 배석하였다.



## 2/4분기 노사협의회 결과

노조 요구 사항	부 서	교육청 협의 내용
1. 공로연수 대상자 직급 확대	총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 7. 1. 부터 공로연수 대상자를 7급까지 확대 시행 되도록 검토하겠음</li> <li>- 공로연수 대상자 예비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3/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최종 확정</li> </ul>
2. 필수실무요원 지정비율 확대	총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수실무요원 신청자 중 소수직렬이 탈락되지 않도록 융통성 있게 검토하겠음</li> <li>◎ 추후 예산 확보 등으로 신청자 대부분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li> <li>◎ 경력 및 연령제한 완화는 행자부 예규개정이 필요함</li> </ul>
3. 나홀로 행정실장 해소 및 처우개선	총무과 행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근무성적 평정 시 실적가점을 반영하고 있음</li> <li>◎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시 고려하겠음</li> <li>◎ 나홀로 행정실장 해소를 위해 관련부서와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음</li> </ul>
4. 학교운영위원회 당연직 간사 규정 개정	학교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운영위원회 당연직 기사 인 「행정실장」 을 「행정실직원」으로 개정하겠음</li> </ul>
5. 시설관리직렬 업무 효율화 방안	총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관리 직렬에 대한 관리자(행정실장) 인식전환 교육 실시(7월)</li> <li>- 인권침해요인, 관행화 등 불합리한 업무지시 사항 공문 시행 및 학교장 회의 시 전달</li> <li>◎ 시설관리 직렬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적용이 어려움</li> </ul>
6. 경북교육사랑카드 적립금 사용 적정성 방안 마련	재무정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북교육사랑카드 개인 적립금 연수 운영 여부 등에 대해 설문조사 후 운영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음</li> </ul>
7. [추가안건] 시간선택제 공무원 인사제도 도입 검토	총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 할 예정임</li> </ul>

## 3/4분기 노사협의회 결과

노조 요구 사항	부서	교육청 협의 내용
1. 2/4분기 노사협의회 안건 추진 현황 가. 공로연수 대상자 직급 확대	총무과	• 공로연수 대상자를 2018년 7월 이후 7급까지 확대 시행 시 소수직렬에 대해서는 인력수급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하겠음
나. 필수실무요원 지정비율 확대	총무과	• 필수실무요원 지정비율(7%)내에서 소수직렬이 소외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 하겠음
다. 시설관리직렬 업무효율화 방안	총무과	• 시설관리직렬에 대한 관리자 (행정실장) 인식전환 교육 실시 - 2017.7.13.경북교육연수원 - 2017.7.20.경북학생문화회관 • 시설관리직렬 지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협조공문 시행(2017.9.18.)
라.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 인사제도 도입 검토	총무과	• 시간선택제 운영이 가능한 직렬과 직무를 분석한 후 실시 (23개 시·군별 특성이 상이하여 시행에 어려움이 있음) • 본청 시범운영 후 검토하겠음
마. 1인 행정실장 해소 및 처우개선	행정과	• 학교통폐합, 직속기관 조직개편 등으로 조정된 정원 변동범위 내에서 학교규모를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바. 경북교육사랑카드 적립금 사용 적정성 방안 마련	재무정보과	• 설문조사 결과 - 해외문화 체험연수 반대 64% - 적립금 개인별 마일리지로 지급 81% • 경북교육사랑카드 해외문화 체험연수를 2019년도 폐지 검토 (단, 카드사용 교직원들의 신뢰보호를 위해 2018년도까지 연수 실시) • 경북교육사랑카드 제휴협약 변경 및 개인별 마일리지 지급 여부는 다음 협의회(4분기)때 결정하겠음
2. 교육실무직원 급여지급일 25일로 조정	학교지원과	• 급여지급일(17일 → 25일)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함 - 매월 10일까지 고용산재보험 토달서비스 홈페이지에 고용 산재보험 개인별 상세내역 업로드 지원여부에 관해 근로 복지공단과 협의하겠음 • 보수의 재원이 상이하고, 급여 업무시스템 미구축 등으로 급여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것은 불가함
3. 일반직공무원 NEIS 연가 신청시	총무과	• NEIS 연가 신청 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종별이 연가인 경우 연가사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관련 내용을 공문으로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협의를 거쳐 NEIS 기능 개선을 추진하겠음
4. 당직근무 제도 개선(대체휴무일 지정)	총무과	• 금요일, 토요일 및 연휴 중간 날 당직근무자 대체휴무 실시는 불가함 - 단, 여성 일직근무자의 경우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다음 협의회(4분기)때 관련 안건을 재검토하기로 함
5. 소수직렬 8·9급 정원 통합관리	행정과	• 타 직렬과 같이 소수직렬 8·9급 정원 통합관리 하겠음
6. 시설관리직렬 위험물관리수당 지급	재무정보과	•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
7. 노사가 함께하는 국외체험 연수 실시	행정과	• 다수의 연수인원보다는 노사간 각각 3명씩 노동전문교육기관에 국외연수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 노조소식

» 공무원 성과급 및 성과연봉제 폐지 1인 시위



# 공무원 성과급 및 성과연봉제 폐지 1인 시위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경북교육노조)는 2017.7.24일(월) 서울 정부 청사 후문 앞에서 전국 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공무원 성과급과 성과연봉제 폐지 및 대정부교섭 요구 1인 시위를 진행하였다.

김종기 위원장은 1인 시위 중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을 만나 공무원노조의 현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소통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김부겸 장관은 "정부에서는 청와대 등과 함께 공무원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 중"이라며, "조금 시간을 달라"고 하였다.

이날 1인 시위에는 경북교육노조 김종기 위원장, 김태균 부위원장, 신영찬 부위원장, 정원상 사무총장, 이제복 지부장이 참여하였다.

향후 경북교육노조는 공노총 산하 국공노, 시군구연맹, 광역연맹, 교육청노조와 함께 7월 28일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가는 한편, 국회의원들에게 성과퇴출제의 부당함을 알리며, 우리의 의견이 쟁취될 때까지 계속 투쟁할 것이다.



## 2017년 2/4분기 노사협의회 개최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김종기,이하경북교육노조)는 2017.6.28.(수)에 경상북도교육청 안동신청사 본관 101호 회의실에서 2017년 2/4분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협의회에 앞서 김종기위원장은 "7월 인사, 업무분장등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며, 노사협의회 분기당 시행이 집행부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공식적 청구 역할로 현장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의미가 있으며, 조합원들의 처우가 개선될 길 바란다" 면서 인사말을 대신 하였다.

이에 김동구 행정지원국장은 "내가 불편하면 상대방도 불편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노조의 의견을 개진 및 개선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0%의 결과를 도출할 수는 없지만 좋은 방향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고 하였다.

이번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공로연수 대상자 직급 확대 △필수실무요원 지정비율 확대 △나홀로 행정실장 해소 및 처우 개선 △학교운영위원회

당연직 간사 규칙 개정 △시설관리직렬 업무 효율화 방안 △경북교육사랑카드 적립금 사용 적정성 방안 마련 건 △추가 안건으로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 인사제도 도입 검토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논의 결과는 적극 검토하여 최종 확정후 노조에 통보하기로 하였다.

이날 협의회에 노조측에는 김종기 위원장, 서종철 수석부위원장, 정원상 사무총장, 박달원 연대협력국장, 배용호 정책교섭국장이 참석하였으며, 시설관리직렬 현안사안 청구 및 의견 제시를 위해서 호서남초등학교 윤병선 주무관 배석하였다. 집행부에서는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김호묵 총무과장, 임홍식 행정과장, 권정숙 학교지원과장, 김창규 재무정보과장이 참석하였다.

경북교육노조에서는 향후에도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복지외 권익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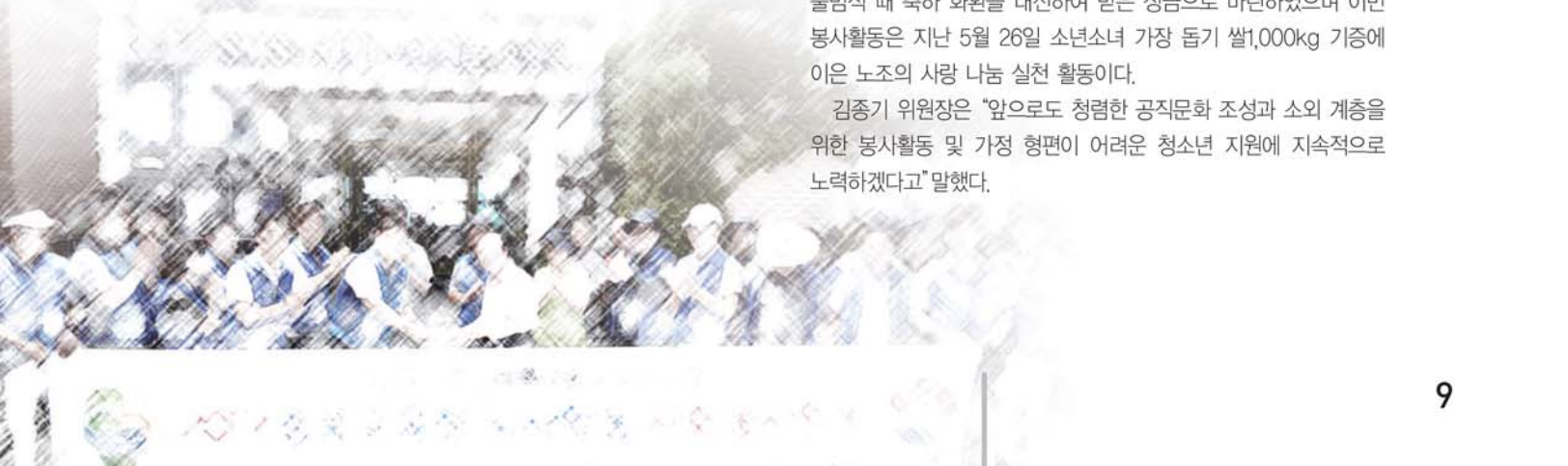
## 2017년 전반기 노사합동 사회봉사 실시

경북교육노조는 2017.7.14(금) 노인복지시설인 SMS 그린힐 군위 요양원에서 김종기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임원과 경북교육청 직원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노사 합동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공무원노조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여 실천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공직문화 조성 과 상생의 선진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번 노인 복지시설에 지원한 물품은 제6대 경북교육노조 출범식 때 축하 화환을 대신하여 받은 성금으로 마련하였으며 이번 봉사활동은 지난 5월 26일 소년소녀 가장 돕기 쌀1,000kg 기증에 이은 노조의 사랑 나눔 실천 활동이다.

김종기 위원장은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외 소외 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및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 지원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말했다.





## 2017년도 교육감과 일반직공무원간의 대화 개최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경북교육노조)은 2017.7.26.(수) 10시부터 경북교육청 화백관에서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23개 시·군교육청에서 추천한 조합원 23명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영우 교육감은 인사말로 "평소 노조로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자주 듣고 있었지만 이런 행사로 학교현장에서 느끼고 있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경북교육행정의 방향 설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 김종기 위원장은 "6급 이하 직원과 교육감이 직접 대화하는 행사를 처음 시작 할 때는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분청 간부들과 노조에서도 상당한 우려가 있었지만 교육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번으로 4번째로 이어져 오고 있다."면서 "어렵게 이루어진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여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하였다.

이날 대화시간은 평소 교육감과 만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조합원들이 근무환경을 비롯한 애로사항을 건의 하였고, 한편으로는 교육감의 교육에 대한 철학, 취미 등에 대한 질의도 있었으며 건의된 내용은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친 후 추진될 예정이다.

약 2시간 동안 이루어진 대화를 마무리 하면서 이영우 교육감은 "오늘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는 노조를 통해서 건의 해 달라"면서 "노조에서 건의된 내용은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정책사항으로 추진될 것이니 노조라는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날 행사에 노조에서는 서종철 수석부위원장, 정원상 사무총장이 집행부에서는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김호묵 총무과장, 임홍식 행정과장이 배석하였다.





## 2017년 하반기 조합원 노사 교육 실시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경북교육노조는 2017년도 하반기 조합원 노사 교육을 지난 9일 경북대 상주캠퍼스(예일관)를 시작으로, 10일 경북도청(동관), 11일 포항(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에서 마무리 하였다.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6급 이하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노사 교육은 올해로 5년째 시행되고 있으며, 동·하절기 방학 중 개최하기로 지난 2013년도 경북교육노조와 경북교육청과의 단체협약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9일 교육에는 김동구 행정지원국장과 강영석(도의회 교육위원장)과 이운식(문화환경위) 도의원이 격려차 참석하였다. 김동구 행정지원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조합원의 복지 향상과 권익개선에 노력하는 경북교육노조는 투쟁과 대립을 배제하고 상생하고 있는 노조로서 집행부에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 라고 하였다.

이에 김종기 위원장은 “현장에서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와 법률에 대해서 노조에 개정을 요구하면 최선을 다하겠지만, 공무원 노사관계는 법과 규정을 지켜야 하므로 시간이 필요하며, 노조가 마치 자동판매기처럼 모든 것을 이루기는 쉽지가 않다.” 면서 함께 노력하자고 하였다.

이번 노사 교육은 김성렬 전 행정자치부 차관의 「공무원 노사관계의 이해」, 정원상 사무총장의 「경북교육노조상반기 실적보고」 조기정 감사관의 「청렴」교육으로 진행 되었다.

특히 김성렬 전 차관은 33년의 공직의 경험이 녹아 있는 열정적 강의를 진행하면서 “행정은 『사랑하는 행정, 아름다운 행정, 따뜻한 행정』을 함으로써 국민을 행복하게 하여야 한다.” 면서 “자랑과 즐거움과 보람”을 공직의 좌우명으로 소개해 많은 조합원이 공감하였다.

이번 노사 교육에는 경북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약 2,000여 명이 참석하였다.

## 포항지부 - 2017년 퇴직자 환송회

- 일시: 2017년 6월 26일(월)
- 장소: 목우촌웰빙마을

경북교육노조 포항지부는 2017. 6. 30자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포항교육지원청 배송동외 10명)으로 30여년 교육현장에서 헌신하시고 떠나시는 선생님들께 앞날에 좋은일들만 가득하시기를 축하드리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경북교육노조 2017년 노조 간부교육 개최



경북교육노조는 2017.8.16(수)부터 19(금)까지 군위 백송 스파비스 호텔에서 노조임원 및 23개 시·군지부장, 사무국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노조 간부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매년 경북교육노조에서 본조 임원 및 지부장을 비롯한 노조 간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개최되고 있다.

김종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업무와 노조 일을 병행하고 있는 간부들 모두 어려움이 많은 것을 알고 있으나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한 경북교육 발전을 위한 희생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보다 나은 경북교육 노조를 만들어가자”고 하였다.

이번 노조간부교육은 고용노동연수원 안정화 교수의 「공무원 노사관계 현황과 과제」, 윤성택 노무사의 「공무원 노사관계 법적쟁점」, 박광진 교수의 「노사상생 우수사례」, 김종기 위원장의 「노조간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강의가 있었으며 2일차 오전에는 지역 문화 탐방시간으로 군위 제2석굴암, 한방 돌담마을, 생활 체험시설인 예주가 등에서 문화 체험으로 간부간의 소통의 장을 열었다.

한편 김성렬 군위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명환 행정지원과장, 김승엽 군위고 행정실장 등이 격려 방담하였으며 김성렬 교육장은 “군위에 오신 것을 환영하며 일반직 노조에서 추진한 복무조례 등이 교육전문직에도 많은 혜택을 주고 있어 감사하다” 면서 “건전한 노조 활동으로 노사상생의 모범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북교육노조의 발전을 바란다”고 하였다.



## 2017년 3/4분기 노사협의회 개최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경북교육노조)는 2017.10.11.(수)에 경북교육청 안동신청사 경북교육노조 회의실에서 2017년 3/4분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협의회에 앞서 김종기위원장은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바쁜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협의 안건들은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으로 이런 기회에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면서 인사말을 대신 하였다.

이에 김동구 행정지원국장은 "1분기, 2분기에 거쳐 3분기를 맞이하여 소소한것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수 있길 바라며, 조합원의 제도개선을 위해 위원장님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으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좋은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하였다.

이번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2/4분기 노사협의회 안건 추진현황 △교육

실무직원 급여일 25일로 조정 △일반직공무원 나이스 연가 신청시 사유(용무) 미기재 시행 △당직근무 제도 개선(대체휴무일 지정) △소수직렬 8·9급 정원 통합관리 △시설관리직렬 위험물관리수당 지급 △노사가 함께하는 국외체험 연수 실시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논의 결과는 적극 검토하여 최종 확정후 노조에 통보하기로 하였다.

이날 협의회에 노조측에는 김종기 위원장, 서종철 수석부위원장, 신영찬 부위원장, 정원상 사무총장이 참석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김호목 총무과장, 임홍식 행정과장, 김창규 재무정보과장이 참석하였다.

경북교육노조에서는 향후에도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복지와 권익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제70차 정기상임위원회 및 2017 하반기 노사합동 사회봉사활동

경북교육노조는 2017.10.13(금) 경주교육지원청에서 김종기 위원장 및 노조 상임위원 24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0차 정기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상임위원회는 △경북교육노조 15년사 출간에 관한 건 △경북교육노조 규약 개정에 관한 건 △2017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건 △경북교육노조 2018년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안)에 관한 건 △기타 노조 현안에 관한 건 등에 관하여 깊이 있는 논의를 하였다.

김종기 위원장은 "바쁜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상임위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현재 노조의 최고 이슈인 성과주의 폐지를 위한 1인 시위 및 집회가 진행 되고 있으며,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한 안건으로 3분기 노사협의회를 마쳤습니다. 상임위원님께 많은 관심과 홍보를 당부드립니다."면서 인사말을 대신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경북교육노조 15년사 출간에 관한 건 2017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건 △경북교육노조 2018년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안)에 관한 건은 원안 가결 되었으며, △경북교육노조 규약 개정에 관한 건은 수정 가결 되었다.

이어서 경주시 구정동에 위치한 경주성애원에서 노동조합 본조 임원 및 시·군지부장, 본청 과장 및 공무원 단체 담당 등 40여명이 함께 노사 합동으로 나눔의 기쁨을 실천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평소 복지시설에서 행하기 어려웠던 내·외부 건물 대청소, 시설물 설치와 시설운영에 필요한 생필품과 후원금을 전달하였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석한 노사 모두는 "함께하고 나누는 기쁨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었으며, 앞으로도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봉사활동을 함께 실천하자"고 다짐하였다.







## 우리나라 공무원노조의 형성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 종 기

>> 연재 ①에 이어

### 1. 공무원 노조의 형성

#### 다. 공무원노조의 형성 과정

##### 7) 공무원노조법 시행 이후 (2006년 1월 이후)

2011년 8월 말 현재 공무원 노조는 96개 노조로 가입 대상자 29만 9천명중 16만 4,393명이 노조에 가입해 있다. 따라서 노조 조직률은 72.1%이다.

공무원노조의 조직형태별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연합단체와 전국적 단위노조로 구분된다. 전국단위 연합단체로는 공노총, 교육청노조, 광역연맹, 한공연이 있으며, 지역단위 연합단체 전북연맹, 전남연맹, 대전연맹, 서공련을 들 수 있다.

이 중 규모가 가장 큰 노조연합체는 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공노총)이며, 2006.9.4 합법노조로 전환 하였다. 공노총은 연합체와 단위노조가 혼재 되어 있고, 가맹조합 행정부 노조와 지역단위 연합체로는 전북연맹(9개)· 전남연맹(7개)· 서울연맹(4개)· 대전연맹(4개)과 서울시청· 대구시청· 인천시청· 대전시청· 광주시청과 대구· 충남· 서울교육청, 인천남동구· 광주남구· 보은군· 아산시· 충남선진노조 등이 직접 가입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한공연은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충남교육기관 노조, 부산교육청 민주공무원노조, 인천교육청기능직 노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노총에 가입되어 있다.

광역연맹은 2009.11.19 전국의 시·도청소속 공무원들이 만든 조

직으로 서울시청, 울산시청, 경기도청, 강원도청, 충북도청, 충남도청, 경북도청, 제주도청으로 구성되어 활동하다가 최근 강원도청이 이탈하여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외 광역자치단체인 서울,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충남, 전북, 전남도청은 공노총으로 가입되어 있고, 부산시청, 강원, 경남도청은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 다른 전국단위 연합단체인 교육청노조는 2004년12월22일 경북교육청노조와 충남교육청노조가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 (약칭 '교육연맹')을 창립하여 법외로 활동하다가 2005년 조직 확대를 거쳐 2006.5.16 연합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9개 교육청공무원노조의 13,043명을 조합원으로 설립신고를 마치고 활동해 오다 2009년 2월에 현재의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으로 조직 명칭을 변경하여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가맹조직으로는 부산,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2개 시도교육청노조가 가입되어 있으며 조합원은 약 2만명이다.

전국규모의 단위노조로는 현 (통합)전공노의 전신인 (구)전공노, 민공노가 대표적이며, 그 밖에 기공노와 한공노를 들 수 있다. 통합 전공노는 2009년 9월 출범 당시 13만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국내 최대 공무원노조이나, 2010년 3월 현재까지 세 차례에 걸쳐 노조설립신고서가 반려되는 등 정부로부터 합법적 지위를 인정받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기공노와 한공노의 양대 지도부는 2009년 9월에 양대노조의 노조통합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고, 그 명칭은 (가칭) '통합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으로 결정하였다.



8) 2012년 이후 공무원노조의 전망

전국단위 연합체 노동조합인 공노총, 광역연맹, 교육청노조는 2010.2월부터 파편화 되어 있는 공무원노조를 하나로 대통합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여 2년 5개월동안의 협의를 계속하여 2012. 6월에 마침내 통합에 최종 합의 하였다.

최종 합의된 내용은 교육청노조와 광역연맹과의 우선 통합하여 총연맹을 결성한 후 공노총과의 통합을 하기로 하였으며, 이 결정에 따라 교육청노조는 2011.11.19 임시대의원 대회를 개최하여 합의안을 승인 받았으며, 광역연맹도 같은 해 12.5 대의원대회에서 통합 안을 승인의 결하였고, 2011.12.27 충청북도청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 설립총회를 개최, 2012.3.2 설립신고를 완료하였다.

이후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무원노총)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2012년 6월 20일 정부 대전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무원노총)을 출범시켰다. 이날 창립총회에서 공무원노총은 초대위원장을 공노총(정의용), 교육청노조(김종기), 광역(박상조)위원장이 공동으로 선출 하고 6개월이내에 단일지도부 체제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이로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행정부노조” “광역자치단체노조” “교육청노조” “기초자치단체노조” 등 4개의 연맹 70여개의 단위노조로 구성되어 조합원 10만의 거대 노조로 활동하게 되었다.

공무원노총이 출범함으로써 공무원노동계는 “공무원노총”과 “전국공무원노조”의 양대 노조로 재편되었다.

2. 공무원노조의 현황 공무원노조의 조직형태별 현황('11.8.31.현재)

합 계		연합(A)		전국(B)		법원(C)		행정부(D)		지자체(E)						교육청(F)	
조합수	조합원수	조합수	조합원수	조합수	조합원수	조합수	조합원수	조합수	조합원수	소 계		시·도		시·군·구		조합수	조합원수
										조합수	조합원수	조합수	조합원수	조합수	조합원수		
96	164,393	9		2	61,430	1	7,500	1	22,994	63	46,342	19	24,500	44	22,842	19	25,177

● ● 참고자료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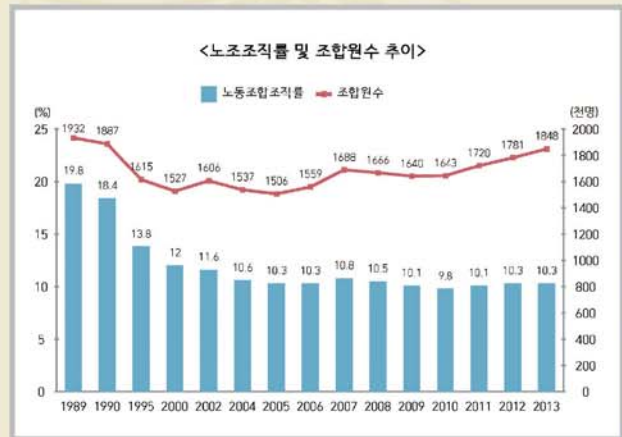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직현황 및 통합

가. 공무원노동조합의 조직현황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직현황에서 눈에 띄는 사실로서는 △민간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조직률, △다수노조의 난립과 파편화된 조직 구조, △조직 통합의 흐름, 그리고 △전국공무원노조의 법적 지위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2013년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의 노조조직률은 10.3%, 조합원수는 185만명 정도이다. 노조 수는 5,305개이다. 한편 공공/민간 부문의 조직현황을 살펴보면 민간부문 조직률은 9.1%(1,578천명), 교원부문은 16.8%(69천명), 그리고 공무원 부문은 63.5%(201천명)을 나타내고 있다. 민간부문에 비해 공공부문의 조직률이 높으며 특히 공무원부문의 조직률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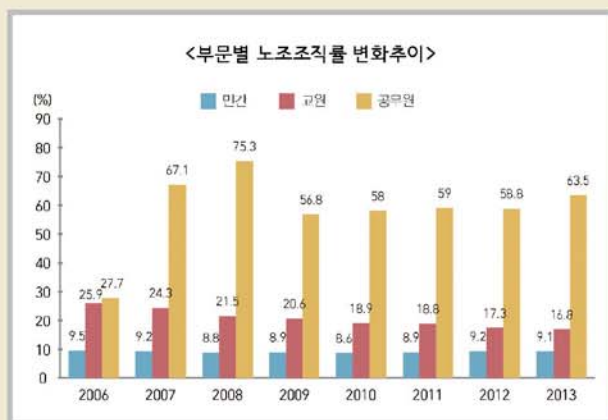


<그림1> 노동조합 조직현황 (고용노동부, 2014.)



공무원 부문에는 123개의 노조가 있으며 여기에는 노조법의 적용을 받는 현업공무원(21천명)이 포함되어있다. 공무원노조법의 적용을 받는 노조는 122개(180천명)이다. 조직대상 316천명 가운데 201천명이 조직되어 있다. 조합당 평균 조합원수는 1,600명 정도로 조직이 다른 국가들의 공무원 노조에 비해 과편화되어 있는 편이다. 후술하겠지만 중앙정부와의 단체교섭을 핵심활동으로 하는 공무원 노조에서 이러한 과편화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례적이다. 한편 공무원 노조의 조직현황에는 설립신고를 마무리하지 못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빠져있다. 참고로 교원부문에는 10개의 노동조합이 있으며 이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60천명을 포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무원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상급단체별 분류에서는 대부분이 미가맹으로 처리된다. 민주노총에 가맹한 전공노가 조직현황에서 제외되는데다 한국노총에 가맹한 한국공무원노동조합(한공련)은 조직 규모가 극히 작기 때문이다. 전국수준의 상급단체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해당된다. 2013년말 현재 미가맹 노조는 2,536개, 382천명이 가입하고 있다.



<그림2> 부문별 노조조직률 변화추이 (고용노동부, 2014.)

#### 나. 공무원노조의 통합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직현황과 관련하여 눈에 띄는 흐름은 조직의 개편이다. 통합의 바람이 거세게 공무원 노동계를 불고 지나간 것이다. 초기 우후죽순격으로 결성되던 노동조합들이 크게 (가칭)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무원노총)으로 정리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초기 공무원 노동조합이 복수노조와 더불어 조직의 과편화를 드러내었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통합의 방향으로 물꼬를 틀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한국공무원노조(구 기능직공무원 노조)와 여타 독립노조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공무원 노동조합의 통합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전국공무원 노동조합의 통합(2009.12)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의 통합(2012.6)이다. 먼저 전공노는 (구)전공노와 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그리고 법원 노조의 통합으로 설립되었다. 이는 2007년 민공노가 “분열된 모든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통합을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추진하였던 대통합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것과 맥을 같이한다. 당시 대통합 논의에는 민공노 이외에도 공노총, 행정부공무원노조(행공노), 광역자치단체연대,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중행노), 교육연맹, 법원노조 등 전공노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무원노조들이 참여하였다.

2009년 6월 3일 조직통합을 선언한 3노조는 2009년 9월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였다. 이 투표에서는 통합승인과 아울러 상급단체(민주노총) 가맹건도 동시에 상정되었다. 투표결과 노조 통합 건은 투표자의 91%가 찬성하였으며 민주노총 가입 건은 68.4%가 찬성하였다. 통합 이후 (통합)전국공무원노조는 고용노동부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해직자 및 업무총괄자의 노조활동 참여, 조합원 총회를 통하지 않은 규약제정 등의 이유로 인해 반려되었다. 노조는 2010년 2월 규약개정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설립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였으나 해고자 및 업무총괄자의 노조활동 계속이라는 이유로 다시 반려되었다. 전공노의 설립신고서는 2014에 네 번째로 반려되었다.

공무원 노총의 통합은 2008년 대통합에 실패하고 (통합)전공노의 출범 이후인 2010년 2월, 공무원노총과 교육연맹, 그리고 광역자치연맹이 통합을 선언하면서 비롯되었다. 공무원노총의 통합도 내부 조합원들의 승인과 정부로부터의 승인 등 두 단계의 승인을 거쳤다. 가령, 시도교육청노조는 2011년 11월 19일, 공노총·광역연맹과의 통합안을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가결했다. 마찬가지로 절차를 광역연맹도 이에 11월에 거쳤으며, 공노총은 12월 15일에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노조통합 안건을 통과시켰다. 통합은 교육청노조와 광역연맹이 먼저 통합하고 이어 공노총과 통합하는 단계를 거쳤다. 교육청노조(위원장 김종기, 1만 6천명)와 광역연맹(위원장 박상조, 1만 1천명)의 총 19개 단위노조 2만7천여 명은 2011년 12월 25일 통합했다. 이 통합노조의 명칭은 대한민국공무원노총(공무원노총)이다. 지도부는 양대 노조위원장(김종기, 박상조)의 2인 공동지도체제로 꾸려졌다.

▶ 다음호에 계속...

참고문헌 : 송태수 : 공무원노사관계의 이해, 한국노동교육원, 2007





『나의 오늘을 기억해 준다면』

『나의 오늘을 기억해 준다면』은 크리스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고 받아들이기까지 과정과 그 끝에서 '자전거 여행'이라는 결정을 하고 캐나다에서 북미까지 2만6000킬로미터를 238일간 홀로 달리며 내신 호흡을 담았다. 더 늦기 전에 자신이 정말 해보고 싶었던 자전거 여행을 떠난 알츠하이머 환자 크리스의 기록을 따라가다 보면, 갑자기 들이닥친 엄청난 운명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정해진 페달을 밟으며 삶을 향해 달려나가는 한 남자의 거칠고 뜨거운 호흡이 전해질 것이다.



『더 이상 참지 않아도 괜찮아』

스스로를 불완전한 존재 혹은 깨진 컵 취급하며 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도 바뀌는 건 없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우선 싫어하는 일을 용기 내어 그만둔다.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용기 내어 하고, 말하고 싶은 것을 용기 내어 말한다. 요컨대 물질적인 것보다 마음을, 결과보다 즐거움을, 참는 것보다 제멋대로 사는 것을, 노력보다 편안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상대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채우는 일이 먼저이고, 그럴 때 행복해질 수 있다. 자신에 대한 비난을 멈추고 자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길 때 행복은 가까이 다가오기 마련이다. 『더 이상 참지 않아도 괜찮아』를 통해 성공하고 타인의 인정을 받으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행복'을 깨달았을 때 좋은 결과가 뒤따라온다는 인생의 진리를 깨우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내일 죽는다면』

《내가 내일 죽는다면》은 데스클리닝 전문가 마르가레타 망누손이 쓴 에세이.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의식하지 않은 채 영원히 살 것처럼 집 안 곳곳을 수많은 물건으로 채우며 현재를 보내지요. 잠시 이 자리를 빌려 한 번만 생각해봅시다. 내가 내일 죽는다면 내 물건들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내일 죽는다면, 나는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정리할까요? 어떤 물건을 두고 또 버릴지는 각자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나, 있는 그대로 참 좋다』

“또, 잊고 있었다.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120만 독자들이 매일 읽는 『사연을 읽어주는 여자』의 있는 그대로 충분히 아름다운 나를 위한 마음 주문. 페이스북 페이지 오픈 후 불과 3년 만에 120만 명의 구독자를 불러 모은 소통과 공감의 메신저, 『사연을 읽어주는 여자』가 두 번째 에세이를 출간했다. 《나, 있는 그대로 참 좋다》는 섬세한 공감 능력과 사려 깊은 언어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읽고 다독여 온 『사연을 읽어주는 여자』가 처음으로 타인이 아닌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은 감성 에세이다.




**청렴 대한민국!  
새롭게 시작합니다**

**청탁금지법은 왜 필요할까요?**

‘청탁금지법’은 어느 곳 누구에게나 깨끗하고, 공정한 세상을 원하는 국민의 마음을 담아 만들어진 법입니다.

-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2조)



국민권익위원회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이란?**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부조 목적**이 인정될 경우에는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 가능

통상적인 업무회의, 간담회, 자문회의 등 } **목적 인정 O**

민·허가신청인, 지도·단속대상자, 입찰 상대방, 고소·고발인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등 } **목적 인정 X**

국민권익위원회

**하용사례 01**

**업무를 겸한 오찬간담회 시 3만원 내 식사는 허용되나요?**

통상적인 업무회의나 회의, 간담회에서는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3만원까지의 식사는 허용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하용사례 02**

**식사비를 각자 낸다면, 직무와 관련하여 3만원 넘는 식사도 가능한가요?**

**공직자가 자신의 식사비를 각자 낸다면 3만원이 넘는 식사도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하용사례 03**

**바자회 개최 등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모금 할 수 있나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기부금품 모집은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하용사례 04**

**도서 산간지역 출장 시, 현지에서 차량지원을 받아도 되나요?**

대체 교통수단이 없어 직무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제공받는 **최소한의 차량지원은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하용사례 05**

**외국정부의 국제행사 초청으로 항공권, 숙박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나요?**

**외교 및 국제교류 증진 등의 목적으로 초청되어 현지에서 제공받는 항공, 숙박, 음식 등은 사회상규에 따라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하용사례 06**

**계약체결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업체의 시제품은 받아도 되나요?**

상품 상태를 확인하는 등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수량만큼 시제품을 받는 것은 사회상규상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하용사례 07**

**국장이 직원 격려를 위해 회식할 때 1인당 3만원 넘게 사줘도 되나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격려·위로 목적으로 제공**하는 식사는 금액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하용사례 08**

**결혼이나 돌잔치 후, 상사나 동료들에게 떡을 돌려도 되나요?**

결혼이나 돌잔치 축하에 대한 답례로 소속 직원들에게 **떡을 돌리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하용사례 09**

**같은 날, 다른 주제로 강의를 했을 경우, 각각의 사례금을 받아도 되나요?**

같은 날 이루어진 강의라도 **주제와 대상이 다른** 별도로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하용사례 10**

**일정기간 여러 번 참석하는 외부강의를 일괄신고해도 되나요?**

강의 특성상 일정기간 계속되는 강의인 경우, **해당기간과 강의시간을 정확히 기재하여 1건으로 일괄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 꿈을 찾아 떠나는 여행

경상북도교육청 주무관 배 용 호

“여러분은 지금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선뜻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개인적으로 생각건대 두 가지 이유에서일 것입니다. 첫째 이유는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소에 자신의 내면(자아)이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이에 속할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는 알고 있으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젊었을 때 가지고 있던 꿈(자아가 말하는 내면의 소리)을 점점 잃고 살아갑니다. 만약 누군가가 젊었을 때 가지고 있던 꿈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다면 주위 사람들은 의례 그에게 ‘철없는 사람’ 또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 이라고 규정짓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꿈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가능하면 빨리 말입니다.

그런데 나이 사십이 넘어서다 보니 점점 어렸을 적 가졌던 꿈들이 그리워집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살아가다보면 인간의 몸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를 자신에게 물어보고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 파울로 코엘료의 소설 「연금술사」를 읽었습니다. 스페인 남부지방을 떠도는 양치기 소년인 주인공 산티아고가 어느 날 낡은 교회에서 꿈을 꾸고난 후 전 재산인 양들을 팔아 이집트로 보물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그린 소설입니다. 그의 결심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바로 자신의 내면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충실히 따르려는 용기였을 것입니다.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꿈을 찾아 떠나는 산티아고의 모습에서 나의 삶을 되돌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가요? 삶이 힘들고 행복한 삶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면 잊었던 자신의 꿈을 찾아 떠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 말입니다. 산티아고처럼 전 재산을 팔지 않더라도 온전히 자신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혼자만의 여행을 떠나보는 것, 용기가 필요하지만 어려운 일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여행에서 돌아오면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결국 보물을 찾지 못하고 돌아온 산티아고가 꿈을 꾸었던 낡은 교회 바닥에서 보물을 발견하게 된 것처럼 결국 우리의 보물은 늘 곁에 있었지만 모르고 살았던 각자의 삶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거짓말처럼 들리시나요? 저는 얼마전에 보물을 찾아 6박7일간 혼자만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삶의 지혜를 주었고 보물이 있는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일상으로 돌아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잊고 지냈던 꿈(자아가 말하는 내면의 소리)을 다시 찾았기 때문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잊고 지냈던 꿈을 꼭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 아버지!

아버지!  
불러보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단어이다.  
인순이씨의 "아버지"를 들으면 눈물이 난다.

우리 아홉형제를 키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신 아버지!  
여든이 넘도록  
꽃꽂하시고 멋쟁이시고  
기억력 좋으시던 아버지!

어느날 한겨울에  
"더운데 어떻게 왔냐"고 나에게 물어보신다.  
그소리를 난 그냥 흘려버렸다!

몇 달 후 어머니께서  
너네 아버지가 좀 이상하다 하신다.  
시계를 보지를 못하신다 하신다.  
달력날짜도 모르고  
숫자 계산도 못한다 하신다.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하니  
"치매라" 하신다.  
헛웃음이 나왔다.  
그때, 한겨울에  
"더운데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실 때  
그때 알아차릴걸.....

내 자식 일에는 한밤중이라도  
자다가 뛰어나가지만  
내 부모님 힘들다 하소연 하시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 듯 외면하고 만다.

**"이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  
**"사랑합니다."**

포항 대도중학교 주무관 **국 미 숙**

나 어릴때에 애지중지 키워주신 부모님!  
내 사랑스런 자식들 어릴 때 키워주신 부모님!  
선뜻 모신다 소리는 하지 않는다.

요즈음은 다들 요양원이라는 곳을 추천한다.  
다들 맞벌이한다고 못 모신다 한다.  
다들 힘들다고, 살기 바쁘다고 모른척 한다.

이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준 부모님!  
그런 부모님을 나는 또 외면하고 산다.

시간은 빠르게 지나간다.  
나도 언젠가는 아버지처럼  
나이가 들면서 늙어가겠지.

나중에 나 혹시나 늙어 힘들어할 때  
내 자식들이 몰라라하면 많이 섭섭하겠지.

오늘은 아버지, 어머니 얼굴을 보러 가야겠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영양강을 사서~~~~~







## 그 아이가 손을 내민다...

경상북도교육연구원 주무관 **우 성 한**

약간은 차갑고 굳은 손... 나의 어색함과 다른... 반가움의 표시...  
일상에서 악수는 서로의 존재를 알리는 수단.. 서로를 탐색하는..  
오늘 내가 만진 손.. 조금은 차갑고 딱딱한 그 손은 내 마음을 열어주는..  
반갑다 손짓하는 고마운 손이었다.

사실 말은 안했지만 나를 조금은 긴장했었다.  
내가 과연 그곳에서 실수는 하지 않은까..  
민폐나 끼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조금은 움츠러들기까지..  
하지만 그들과의 첫만남은 단순히 나만의 기우란 사실을 알기까지는  
그리 오래걸리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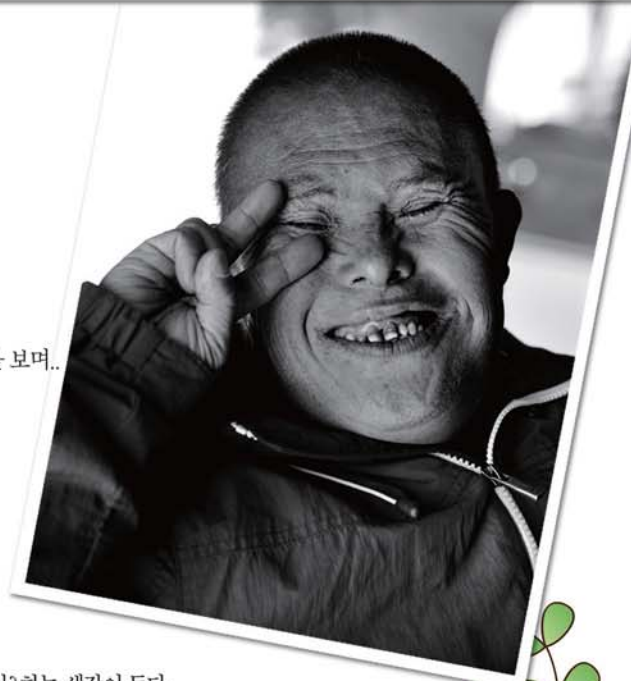
나를 멱살하게 만든 그 손.. 첫 만남이었지만, 그곳에 계신분들은 해답이었다..  
오히려 움츠러드는 나를 끌어당기고 있었다고 할까?  
정상인과 장애우들의 다른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마음의 차이였다, 마음의 벽이 문제였다.  
그 벽이 아이가 내민 손에 허물어졌다.

사진 찍는내내 뷰파인더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통해  
난... 보이지 않았던 무엇가를 느낄 수 있었다.  
이상하리 만큼 커보이는 사람.. 미소가 아름다운 사람.. 행복해 보이는 즐거워 보이는 사람들을 보며..  
그냥 눈물이 났다.  
그냥.. 나도 모르게.. 사진에 찍힌 피사체는 모두 정지상태..  
이렇게 찍힌 모든 것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도 다른각도에서 보면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

정상인과 장애우와의 차이도 그렇지 않을까?  
조금 다르다는 것 뿐, 그들도 똑같이 사랑을 하고 좋코 싫다는 것을 느끼며 말할 수 있다.

단지.. 우리와 조금 다르다는 것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지금껏 내 생각이 틀렸다는 생각을 해본다..

과연 난.. 지금껏 이렇게 환한 미소를 지어본 적이 있었나? 그들만큼 감정에 솔직해 본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다	양	성			비	짜	루
용		사	닥	다	리		미
도	전			반		폐	늘
	무			사		가	
	후	원	회			수	
보	무		심			스	시
자		각	곡	유	목		래
기	대	두			성	수	기

자명종 14호 낱말 맞추기  
이벤트 당첨자 발표

순번	소속기관	성명
1	안동영호초등학교	김민희
2	북주초등학교	김영미
3	군위 의흥중학교	신복실
4	도교육청 행정과	이국섭
5	예천초등학교	김찬미
6	가은고등학교	정지혜
7	구미 도송중학교	이봉자
8	안동영호초등학교	장인숙
9	형곡고등학교	장경숙
10	김천 농소 초등학교	신형자
11	상주교육지원청	김재동
12	도교육청 행정과	이미영
13	화북초등학교	김형욱
14	영덕야성초등학교	김상식
15	죽천초등학교	편해권
16	포항흥해공고	배문호
17	금성초등학교	권순희
18	성주초등학교	김종근
19	동산초등학교	김건영
20	죽천초등학교	김순화

※ 이벤트에 응모해 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말 드리며,  
당첨되신 모든 분들께 축하를 보내드립니다.

응모방법

정답을 보내오신 조합원들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응모하실 때에는 A4용지에 낱말 맞추기와 소속기관 주소, 우편번호, 성명, 소속, 핸드폰 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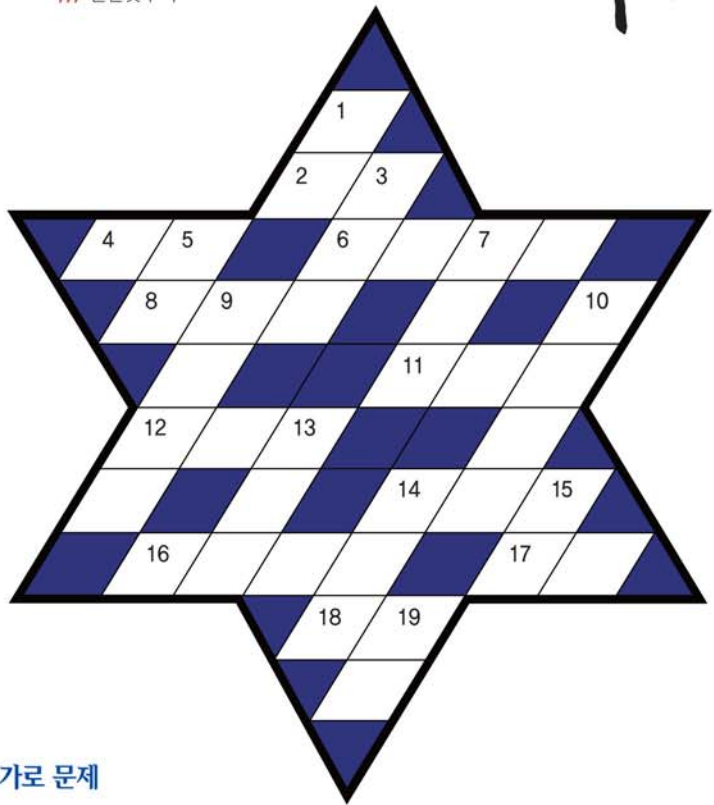
- 응모기간 : 2017년 11월 30일(목)까지
- 보내실곳 :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36759)로 우편 또는 직접방문, 팩스송부(Fax.054-805-3989)

※ 당첨자는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홈페이지  
(www.gbe.or.kr)공지사항란에 알림

조합원 투고 안내

조합원 소식, 기행문, 시, 수필, 콩트, 만화 등 소재에 구별 없이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사무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보내실곳 : 화랑이(아이디03ina)  
또는 메일(03ina@gyo6.net)
- 문 의 :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사무처  
(054-805-3981)



가로 문제

2. 깊은 바다.
4. 조상 때부터 대대로 살아온 나라.
6. 오류의 하나. 어른과 어린이 또는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는 지켜야 할 차례와 질서가 있음을 뜻함.
8. 몸을 보호하기 위한 무술. 태권도 · 유도 따위.
11. 어떤 일이나 사상에 있어 그 시대의 다른 사람보다 앞선 사람. 일송정 푸른술은 늙어늙어 갔어도~.
12. 식물이 자라지 않는 거칠고 메마른 땅. ○○○를 개간하다.
14.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인, 옷과 음식과 집.
16. 한 남편만을 섬김. 또는 그 도리.
17. 앓을 때 밑에 끼는 작은 깔개.
18. 선거에서 뽑힘. 국회의원에 ○○되다.

세로 문제

1. 어린이의 마음. 또는 어린이처럼 순수하고 맑은 마음.
3. 주로 전날 마신 술로 불편한 속을 풀기 위해 식전에 조금 먹는 술.
5. 나라의 이름. 우리나라의 ○○는 대한민국이다.
7. 석유나 천연가스 따위의 액체 화물을 대량으로 나르는 배.
9. 오늘의 년센스 퀴즈, 신나게 술을 마신 뒤 토하고 싶어도 이불엔 절대 불가라는 뜻의 사자성어는?
10. 글자를 한 자도 모를 정도로 무식함. 또는 그런 사람.
13. 어떤 집단을 일정한 목적이나 방향으로 가르쳐 이끄는 일을 맡아 하는 부서. 또는 그 부서에 딸린 성원.
14. 의원들이 모여 회의하는 건물. 주로 국회 ○○○을 이룸.
15. 음식을 만들거나 차리는 방.
19. 남에게 축하나 고마움의 뜻을 담아 어떤 물건 따위를 선사함. 또는 그 물건.

국	동	호	모	토	장	해	일	이	선	부	심
방	주	도	자	유	조	불	의	당	무	물	종
술	식	선	일	서	구	신	지	사	석		

※ 위의 글자로 단어를 생각해 보시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 조합원 복지안내

- 대상 : 경북교육노조 조합원 및 직원
  - 신청 : 각 주관사 대표전화로 경상북도교육청노동조합원 소속임을 알려주세요.
  - 기간 : 모든 서비스는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 까지 상시 이용 가능합니다.
- ※ 자세한 이용방법은 경북교육노조 홈페이지 <http://www.gbe.or.kr>/자료실/복지물을 참고하세요.

## 건강검진 상품권 행사안내

- 신청대상** 경상북도교육청 노동조합 및 가족
- 검진항목** 내시경, 정밀초음파검사, 부인과검사, 심전도, 혈액검사, CT등  
(M class와 VIP M class는 검진 항목이 상이하므로 세부 별첨 내용을 꼭 확인해주세요.)
- 검진가격** 50,000원(배송비포함) ▶ M class 1매 + VIP M class 1매
- 신청방법 및 진행**
  - 접수기한: 2017. 09. 29 (금)까지 ※메일 주소: healthware114@daum.net
  - 신청명단 취합 후 ▶ 개별연락 후 상품권 발송 ▶ 수령 후 전화예약
- 검진예약**
  - 전화 예약/상담: 대구 효성병원 (053) 212-7871~3  
서울 동작경희병원 (02) 6925-7323 / 7324
  - 검진관련문의: Tel.010-8480-4404 건강증진센터 김유석 총괄이사



M class 350,000 ▶ 본인부담금 없음



VIP M class 1,300,000 ▶ 본인부담금 250,000

※ 백화점상품권 TYPE의 상품권 발송 (2매 1세트), 타인 사용가능 ※ 1인 3세트 구매 제한  
 ※ 선착순 300명 혜택 제공 ※ 사용기한: 2018년 3월 31일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http://www.gbe.or.kr>

램브란트치과는 임직원 및 가족분들께 업무제휴를 통한 특별한 혜택과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겠습니다.

### 임플란트 센터

덴티스 88만원 / 덴티움, 오스템 105만원(백이식비용 별도)

### 수면 센터

치과공포 만성질환자들에게 적합한 경우 저는 듯 편안한 수면치료 5,000명 이상

### 비보험 진료 15%

보철치료 금니, 틀니, 리미네이트 등 비보험진료 15% 할인 혜택(보험료 제외)

### 치아교정 진료 혜택

2014년 메디컬코리아 치아교정부문 대상 병원에 선정  
 메탈교정 380만원, 세라믹교정 430만원 (추가 진료비용 없음)

진료시간

월, 금(아간진료): 9:30 - 21:00  
 화, 수, 목 : 9:30 - 19:00  
 토요일 : 9:30 - 15:00  
 \*토요일은 점심시간 없이 진료합니다.

### 오시는 길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162-2 우리빌딩 6층  
 (월배로 175, 홈플러스 상인점 옆 우리은행 건물)

\*\* 진료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방문 전 김유원 실장에게 미리 전화 예약 주세요.

램브란트 치과 Lamplant  
 담당/실장 김유원  
 010-9352-7790

**경북교육청과 누네안과병원이 함께하는 특별 이벤트**

당일검사 당일수술이 가능한 원데이 프로그램

수술명	이벤트기	지원/혜택가
무통 노티라 라섹	120만원	100만원
아이리스 750s SBK라섹	130만원	115만원
아이리스 1050s RED 라섹, 라섹	라섹, 라섹 + 40만원	
노안교정술(트라스비)	라섹, 라섹 + 단안 40만원, 양안 60만원	
렌즈삽입술 (종류에 따라 가격이 있음)	알터플렉스 335만원 / 아쿠아ICL 420만원	
비급여진료, 수술, 드림/브드렌즈 (수술비용 수술료 별도 포함)	10~20%	

※ "부모님 는 기본검진권 1매 증정"

• 검사결과에 따라 추가 옵션시술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혜택대상 직원 및 직계가족, 원데이(배우자 동일 직장) 전후에, 방문시 "재용사 경북교육청"이라고 말씀해주셔야 재용사가 적용됩니다. 예약 및 문의는 아래 담당자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사항 : 010-7651-5411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가족을 위한 올레이저 라섹·라섹·노안백내장

최대 50% 할인 + DNA5종 20만원 지원 + 당일 수술 20만원 할인

당신의 눈, 최고에게 맡기십시오!

재·휴·사·특·혜·택

재용사 혜택	라섹/라섹 검사무료 (60명까지)	재용사 특화 서비스	각막유전자 유전자 5종 추가지원 (200명)	다이나이진 추가지원 (200명)	1DAY 당일수술 추가할인 (200명)
안과진료비 지원	부담금 면제	안과진료비 지원	안과진료비 지원	안과진료비 지원	안과진료비 지원

진료항목	아이아쿠아케어	일반가	재용가
안구건조증	눈물 자극제	4만원	1만원
4대 안질환검진	백내장, 녹내장, 당뇨망막, 황반변성	20만원	5만원
하드드림렌즈	나이프론 EX-UV	30만원	24만원
올레이저 라섹/라섹	CRT, DMC	100만원	80만원
	올레이저 라섹	160만원	110만원
	Z4 라섹	190만원	140만원
	올레이저 각막강화 라섹	210만원	150만원
노안교정술	2017 뉴 비유엑스 라섹	220만원	160만원
	40 노안라섹	220만원	170만원
프시비임 시력교정술	30스몰렛	320만원	250만원
	단초점 백내장	320만원	17만원
노안 백내장	난시 백내장	120만원	최대 10% 할인
	다초점 백내장	335만원	

※ 의료보험 적용대상 안구건조증과 백내장수술은 의료비가 적용이 되는 진료 및 수술입니다.

문의 : 051-805-1100

## 안동제일치과병원

ANDONG FIRST DENTAL LOCATION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깨 드리는 특별한 혜택  
 대상 :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및 직계 가족

진료과목	재용우대가(비급여)	기타
보철치료	15%우대혜택	크라운, 인레이, 틀니 등
미백치료	전문가미백+자가미백(2주) 50만원	부가세포함
수면치료	수면마취 20만원 → 10만원	시간당
임플란트	125만원 → 100만원 특가 89만원	브랜드선택가능 (오스템, 메가젠, 디오, IBS)

054-855-6363

안동시 송현동 368-1 애플타워 4.5층  
 송현오거리(영주방면)

진료시간  
 평 일 AM 09:30 ~ PM 06:00  
 야간진료 화요일 PM 8시까지  
 점심시간 PM 12:30 ~ PM 02:00  
 토요일 AM 09:30 ~ PM 04:00  
 일·공휴일 휴진

문의 : 경영기획실 김도훈 팀장  
 010 - 2796 - 2701



## LG 베스트샵

LG 베스트샵 '안동중앙점', '안동 옥동점' 제품 구매 시 1인당 총 구매금액 700만원까지 배송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매금액의 7% 멤버십포인트를 공무원 명의 멤버십카드에 적립(단, 최초 구매에 한하여 700만원을 초과한 구매금액에 대하여도 멤버십포인트 적립)

- ex) 1. 최초 1,000만원 상당 제품 구매시 70만원(7%) 상당 멤버십포인트가 적립되나 이후 구매부터는 멤버십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음
- ex) 2. 최초 500만원 상당 제품 구매 후 익월 400만원 상당 제품 구매시 익월 400만원 구매 금액 중 200만원에 대한 7%만 멤버십포인트로 적립됨

'경북교육청'의 공무원으로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증명서(공무원증)를 제시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의 가족에 한하여 구매 혜택 제공(납품 또는 구매자가 기관인 경우 해당사항 없음)

### 업무시간

매 일 : 10:30~20:30  
일요일 : 11:00~20:30  
공휴일 : 11:00~20:30

### 문의 및 상담

[안동 중앙점] 054)857-2200  
[안동 옥동점] 054)857-4300

◆ 자세한 업무시간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바랍니다.

## 서안동 현대서비스

- "서안동현대서비스"는 "교육청 소속 직원"이 차량정비를 이용할 경우 최종 공임의 30%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 "서안동서비스"는 "교육청 소속 직원"이 사고차량 보험 수리 시 기부담금(면책금)의 30%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 "서안동서비스"는 "교육청 소속 직원"의 자동차 정기 검사 시 수료료의 10%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 "서안동서비스"는 "가", "나"호의 할인 내용에 대해서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경북교육노조"에 사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교육청 소속 직원"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문의 및 상담 tel.054)859-3434

◆ 자세한 업무시간은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 전국공무원 상조서비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 상조서비스는 장례서비스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여 조합원 여러분의 가족 및 친인척의 가정에서 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장례행사와 무관한 영업수당을 제거하여 30%이상 절감된 가격과 질 좋은 장례용품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임종 즉시 연락  
전국공무원상조서비스(주) 24시간 임종신고센터 (☎1577 - 1323) 경상북도교육청 소속임을 알리고 장례서비스 제공 요청

### 혜택내용

- 분향실 · 장의용품 사용료의 20%, 리무진 사용료의 40% 할인
- 무료셔틀, 무료운구, 무료주차, 문상객 무료사위장 운영
- 협약 업체만 본 서비스 이용가능(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 연중무휴

## 공노총 공무원 복지몰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325  
선인빌딩 501호 (역삼동 773-7)

고우웰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조합원에게 합리적이고 착한 가격으로 혜택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복지몰이며, 회원가입 시 소속노동조합의 고유코드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 경북노조 고유코드 : 13ed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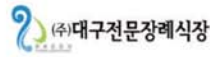
### 업무시간

- 평일 09:30~17:30  
- 토/일요일 · 공휴일 휴무

### 문의 및 상담

tel. 070-7178-7202

## 대구전문장례식장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856-2번지

- 분향실 · 장의용품 사용료의 20%, 리무진 사용료의 40% 할인
- 무료셔틀, 무료운구, 무료주차, 문상객 무료사위장 운영
- 협약 업체만 본 서비스 이용가능
-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 업무시간

### 연중무휴

### 문의 및 상담

tel. 053) 961-4444





조합원의  
작은 희망을  
앞장서 대변하겠습니다.



조합원의 작은 희망을 앞장서 대변하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전화 053)805-3981 팩스 053)805-3989 [www.gbe.or.kr](http://www.gbe.or.kr)